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추석 전화금융사기 예방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도동지구대(대장 황인용)는 26일 남원농협 도동동 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자치경찰사무)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은행을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전화와 광고 및 인터넷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은행 사칭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등 서민 금융 상품인 것처럼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하여 대출 희망자 유인, 대출금 상환·보증금 명목 저금리 대출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편취하는 시세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인용 지구대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모르는 대출 문자 및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는 피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관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종교계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고창군 4대 종단, 추석맞이 명절꾸러미 나눔 행사

고창군 4대 종단(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에서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꾸러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조계종 선운사(경우 스님), 원불교 고창교당(노범연 봉공회장), 천주교 고창성당(김요안 신부), 고창 중앙교회(전종찬 목사)에서 관내 저소득 및 소외계층 250세대를 위해 쌀, 송편, 한과 등 꾸러미를 직접 만들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달해드렸다.

4대 종단 각 대표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꾸러미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고창군 종교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종교계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소외계층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며 "소중한 나눔의 손길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전 직원, 1회 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이 26일 SNS 1회 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전 직원 1회 용품 사용제로 실천 의지를 밝혔다.

1회 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상 속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지난 2월 한화진 장관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이 동참하며 진행 중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로부터 캠페인 참가 추천을 받았고 다음 참여지로는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를 지명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재단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와 개인컵 사용 등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명절 음식 나눔봉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추석맞이 취약계층 명절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미역국 전 등 명절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사회복지협의회, 평화의 집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2023년 시·군 센터 지원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추석맞이 취약계층 명절음식 나눔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 나눔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남원지구협의회 회원 30여명, 남원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10여명이 참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영기 전북대 교학부총장,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박영기 교학부총장(토목공학과)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26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기금으로 지정돼 학생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박영기 교학부총장은 "최근 전북대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며 학생 중심 대학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전북대가 세계적인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수업실기대회 시상식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원장 김평)은 지난 25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제11회 교대 수업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대회는 2~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로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수업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지도를 통한 수업실기능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업실연 부문과 수업비평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상은 수업실연 부문에서 금상 1팀, 은상 3팀, 동상 2팀이, 수업비평 부문에서는 장려상 4팀이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과학교육과 3학년 고희진 학생은 상장과 함께 2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대산면 발전협, 백미·쓰레기봉투 전달

남원시 대산면 발전협의회(회장 김한수)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백미 20kg 15포(90만원 상당)를 준비해 이웃돕기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백미는 관내 15개 마을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하고 재할용 쓰레기봉투를 세대당 20매씩(30L, 환가 531만 4천원)을 전 세대 648세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수년째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현물 및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한수 협의회 회장은 "나눔으로 함께 따뜻해지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수자원공용담댐지사, 취약계층 제수용품 전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 취약계층에 명절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전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는 26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 64가구에 명절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제수용품은 소고기, 송편, 조기, 사과, 배, 김, 유과, 부침개 등 명절 차례상 필수품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물사랑나눔단에서 후원한 선물세트로 구성됐다. 물사랑나눔단은 용담댐지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로 관내 취약계층 및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달식은 전준성 군수와 김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들, 용담댐지사장, 협의회 읍·면 지회장과 봉사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 직후 각 사회복지협의회 읍·면지회, 사회복지주민운동센터, 좋은이웃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봉사자들은 지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제수용품 전달과 함께 소외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진 회장은 "한가위에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진 지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경찰, 추석 맞이 재래시장 특별교통관리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25일 장수읍 재래시장 5일장을 맞아 추석맞이 특별 교통 근무를 실시 했다.

이날 근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대목장인 장수읍 재래시장 주변 이면도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재래시장 주요교차로 거점 근무를 통해, 보행자 및 이륜차를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까지 고속도로 불개이트, 주요국도 및 터미널, 대형마트 등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대, 태전그룹 후원 외국인 유학생에 나눔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6일 국제교육관 접견실에서 태전그룹(대표 오영석)의 후원으로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에서 첫 명절을 맞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태전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통한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매년 전주대학교에 협력하고 있다.

미얀마 유학생인 JA SENG RO(한국어문학과) 학생은 "현재 국가의 내부 갈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추석 맞이 유학생 '사랑의 물품 나눔' 행사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우병훈은 26일 유학생들을 위한 비전가족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이 더욱 그리울 유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나누고자 비전대 교직원들의 후원금을 모아 리본 600박스를 구입해 유학생들에게 1박스씩 나눠 줬다.

이 자리에는 우병훈 총장 처장장 및 교직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제교류원 이효숙 원장은 "교직원들이 집시알(什食-飯) 정성을 모은 사랑의 나눔 실천이 유학생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추석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 넉넉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기회가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가족센터, 한가위 외국인 근로자 위로

남원시가족센터에서는 지난 25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 35명에게 '한가위 음식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한국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가족센터 직원과 결혼이민자 회원들이 찰밥, 전, 불고기, 과일, 묶음 리본으로 구성된 음식 나눔 꾸러미를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주요역 센터장은 "다문화가족과 지역민 그리고 센터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소통하고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시 여성다문화팀 소년자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정을 느끼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실시

남원경찰 관계자는 남원경찰서 김철수 서장은 지난 25일 남원 성원고 전교생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 특별 예방교육(자치경찰사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 학교폭력 및 보이스피싱 전담책 알바, 마약 흡입 및 전담책 알바 등 청소년들이 현혹되기 쉬운 범죄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최근 증가하는 PM(전동킥보드)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이용(면허취득·헬멧 착용 등)을 설명하고, 특히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 과정 등을 소개했다.

한편 김철수 서장은 "앞으로도 학교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